

중대재해 발생 후 5년

이상윤 KCC글라스노동조합 대의원

유리 제품 쓰러지는 소리 ... 퍽.

갑자기 고요가 찾아왔다. 심상치 않은 소리였다. 잠시 후 여기 저기에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3호기에 사람이 깔렸어. 빨리 119!” 수화기 너머로 다급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여주에 있는 유리 제조공장에서 2.5톤 유리에 작업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화롭던 작업장은 순식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 현장이 되어버렸다. 2019년 2월 11일의 일이다. 불과 6개월 전인 2018년 8월 30일에도 형님 한 분이 비슷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셨다. 새로 시작한 지 2개월 남짓 된 신규 집행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혼란과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역지부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성남 지청장과 1시간 넘게 면담도 했다. SBS 기자와 연결된 뒤,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

그 결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16명, 4개 팀이 5일 동안 머무르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 1억 4,000만 원과 사법 조치 185건, 또한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을 통하여 전체 공정의 생산을 22일간 멈추기도 했다.

유가족의 억울함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동지로서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장에서 고인의 노제를 지낸 후 장지인 용인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장례절차도 마무리되었다.

다시는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

장래 후에는 중대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이 유리한 지형인 것 같았지만, 긴 시간 동안 생산을 멈추다 보니, 조합원들의 불멘소리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에서는 시체 장사합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다 공장 문 닫으면 어찌려구 그러냐?”라는 조급함도 있었다.

사측은 이걸 기회로 삼았다. 1,600도의 용광로가 있기에 24시간을 3교대 근무하는 현장인데, 노동조합의 공백이 생기는 야간근무 새벽 시간에 사측 관리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회사측의 동의서 조직은 결과적으로 300명 조합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하였고, 관리자들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 버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20일 정도 지나서야 본사의 중역이 노동조합을 찾아왔고, ‘대표이사의 사과문 발표’와 ‘안전 경영 선언문 발표’, 그리고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확약서의 내용은 안전에 관한 비용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1개월에 1회 실시하겠다는 약속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뒤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은 ‘확약서’의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 짐작한다. 합의 후인 중대재해 발생 22일이 되던 날, 노동조합 간부들은 고인을 추모하던 분향소를 철거하였고, 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현장 청소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측의 반격은 아직 남아 있었다. 22일의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였기에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작업 중지로 인한 직접 손해가 70~80억 원에 이르니, 일부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다. 배재형 열사가 그랬다. “질긴 놈이 이긴다.” 맞는 말인 것 같다. 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3개월을 버티고 나니, 임금 지급을 반대했던 놈이 징계를 받고 멀리로 떠나갔다. 손해배상 청구는 없었다.

오래 전 사고를 다시 떠올리며 글을 쓰니, 노동조합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생각한다. 김한민 동지, 이근택 동지, 손진우 활동가님, 화섬노조의 현재순 실장님. 감사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동지들이여

2018년 3월 13일, 8월 30일, 2019년 2월 11일

우리의 요구

- 작업환경 개선
- 부족인력 충원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화학섬유연맹 KCC 여주공장 노동조합 -

▲ 사고 당시 만든 선전물. 제공 : 이상윤